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의 아버지께 겸손히 우리의 필요와 도움을 구할 때 지금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기 도 인 도 자

찬송가 446장

찬 송 1. 주 음성외에는 참 기쁨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2. 나 주께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에
3.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4.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후렴 //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기도문 다 같 이

성묘예배순서

- 예식사 (인도자) :
- 오늘 우리 가족들은 고 ○○○씨의 무덤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 신앙고백 (다같이) :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 찬 송 (다같이) : 고인이 즐겨 부르던 찬송
- 성경봉독 : 욥기 7:1-10
- 권면과 위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인생을 살려면 먼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인생 고백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인생의 많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일까요? 욥기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인생을 교훈 받아 봅시다.

첫째, 인생은 전쟁과 같다고 합니다.

욥은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고 고백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전쟁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특히 수많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출근하여 일하는 것과 사업하는 것이 전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인생과 같이 사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예베소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엡 6:12).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잘 해서 인생 전쟁에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인생은 베들의 복과 같다고 합니다.

"나의 날은 베들의 복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 구나"고 했습니다. 여기서 베들의 복이란 베를 짜는 베들에 딸린 부속품의 하나로, 숙련된 아낙들은 베를 복을 재빨리 날줄 사이에 넣고 지나게 해서 섬유를 만들어 냅니다. 욥은 인생을 마치 베들의 복과 같이 빠르게 꽃처럼 쉽게 시들고 그림자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인생은 베들의 복처럼 신속하게 빨리 지나갑니다. 봄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인생 가운데서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아껴 쓰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셋째, 인생은 구름이 사라짐 같다고 합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인생을 구름에 비유해 노래했습니다. 생겼다가 곧 사라지는 구름처럼 인생이 태어나지만 곧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름 같은 한평생을 살면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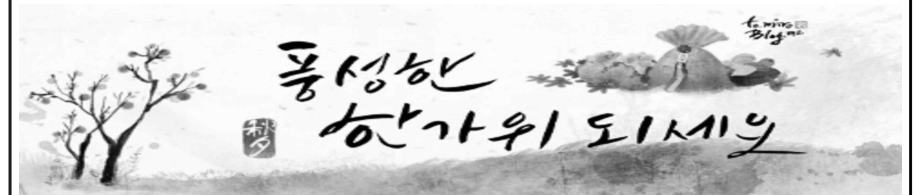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 주실 것을 믿고 보람된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찬 송 (다같이) : 1장
- 주기도문 (다같이)



2019 중추절 감사예배 & 가족예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 12:3)



예배 순서

중추절 감사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목 도 시 118:1(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인 도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송가 559장

찬 송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성 시 교 독 감사절 다 같 이

인도자 :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회 중 :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도자 :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회 중 :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이다
 인도자 :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회 중 :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인도자 : 이에 근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회 중 :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라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인도자 :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다 같이 :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기 도 가 족 중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온세상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되도록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출 17:1-7, 고전 10:1-4 인 도 자

출애굽기 17:1-7

-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 2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 3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 4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 6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 7 그가 그 곳 이름을 맛사 또는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었도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10:1-4

- 1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 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 3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 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 씬 감사의 명절 인 도 자

구약의 이스라엘은 한 때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에서 노예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백성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출 15:13)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마른 절박한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백성의 태도는 어떤 것일지 살펴보아 우리에게 적용될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애굽 전역에 쏘아진 열 가지 재앙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고 마른 땅을 지나 광야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는 구름기둥으로, 얼어붙은 땅을 지날 때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꿀맛 나는 만나를 내리셔서 일용한 양식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과연 이스라엘만 그런가요?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죄와 사망에 종노릇하던 우리를 건져내어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거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무한한 기쁨과 위로를 주시며 마침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견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골1:13). 말로 표현하기에 부족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더욱 부어졌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불평이 아닌 겸손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 당신 자녀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시험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출 17:7)”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벌하고 죽임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고 거기서 물이 나와 백성을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충만하여 흘러넘칩니까?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불평을 한 적은 없나요? 나와 타인의 죄와 불의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시험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그 한 가운데 먼저 와 계십니다. 또한 고난의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 누구라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전 10:4)” 그런데 그 앞을 주목해 볼까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번역되었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자신이 신령한 반석으로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다고 대답하십니다.